오대산/오대산 중대(역사성10, 인지도9, 접근성5, 연결성5)



그림 1. 오대산 중대 사자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오대산 중대는 최고봉인 비로봉 아래 해발 1천미터 지점에 위치한다. 중대 위쪽으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있다. 오대산은 설악산과 더불어 남한 백두대간의 7대 명산으로 주봉인 비로봉(1,565.4m)을 중심으로 호령봉(虎嶺峰) · 상왕봉(象王峰) · 두로봉(頭老峰) · 동대산(東臺山) 등의 고봉들이 솟아 있다.
오대산은 설악산과 더불어 백두대간에 속하는 고산준령으로 주봉인 비로봉(1,565.4m)을 중심으로 호령봉(虎嶺峰)·상왕봉(象王峰)·두로봉(頭老峰)·동대산(東臺山) 등의 고봉들이 솟아 있다. 산의 가운데에 있는 중대(中臺)를 비롯하여 북대·남대·동대·서대가 오목하게 원을 그리고 있고, 산세가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연심(蓮心)과 같다 하여 오대산이라고 부른다.
오대산국립공원 내의 사찰로는 월정사와 상원사가 유명하다. 또한 중·동·서·남·북의 오대(五臺)에는 각각 사자암(獅子庵)·관음암(觀音庵)·수정암(水精庵)·지장암(地藏庵)·미륵암(彌勒庵) 등의 암자가 있다. 월정사 경내에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국보, 1962년 지정) ·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보물, 1963년 지정) 등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월정사 북쪽에 위치한 상원사에도 상원사 동종(국보, 1962년 지정)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겨울에 오대산 능선에 오르면 앙상한 고사목과 적설 등이 어우러져 겨울 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비로봉을 지나 상왕봉까지의 4㎞ 구간은 갈대밭으로 덮여 있어 절경을 이룬다.